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영들을 분별하라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

Tag:영분별,거짓의영,악령,적그리스도의영,적그리스도,성령,신약성경,요한일서,요한1서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일 4:1-6)

지난주간은 성령강림주일,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이다.

성경에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실제로 온 세상은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러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듯이 살아가는 척 한다.

그 이유는 영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영적인 해석들이 하나님 지향성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지 않도록 하라.)

사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영향을 바로 받게 된다. 사사건건 자기 속에 거하는 영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심지어는 부주의하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유의미한 사건으로 해석한다.

-오늘 아침 9시에 등산 가려고 급히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려(혹은 발을 헛디뎠) 넘어질 뻔 했다.

-영똥한 해석; 오늘 산에 가면 앓된다는 신호이다.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 가까운 산에 가라는 신호인가 보다.

-어제 밤에 꿈자리가 사납더니 이런 일이 생기려고 그랬나 보다.

-오늘 산에 가서 아무개 만나 사업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다른 사람 만나야 하겠군.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대한 긍정과 부정에 관련된 사례들을 모으게 된다.

-건강한 해석; 역시 서두르지 말고 침착해야 하겠군.

그러나 각자의 속에 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을 발설하지 않으려고 한다. 더군다나 종교가 다를 경우 더 그렇고,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샤머니즘적으로 비칠까봐서 입을 다문다.

-그러나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흔하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한다.(이만희 이단들이 애용함)

-특히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속이는 말에 쉽게 무너지기도 함.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거나, 사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영적인 일들을 재밌는 일로 삼거나, 호기심이 자극받아서 무작정 행하거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하거나, 액땀용으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1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이 말은 각 사람속에 일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성령인지, 아니면 귀신의 영인지를 분별하라는 뜻이다.

-성령은 한분이시다. 천사는 여럿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이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기초지식이 중요하다.

1. 기초적인 영적인 지식

1) 성령이 가장 강하신 분이다.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 다른 영에게 속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액땀을 안해도 되나, 저들과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아도 되나 염려하지 말라.

2) 미혹되지 말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영적으로 스스로를 더럽힌다는 말은 귀신의 영에게 순종하거나, 그 말을 듣거나, 시험삼아 따라 해 보거나, 궁금하니 점을 보거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에 해당한다.

3)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옛 모습이나 귀신의 영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일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나 귀신의 영에게 속한 부분만큼은 죄와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다.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생각과 의와 죄를 죽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까지는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

4) 귀신의 영은 결코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상을 주지 못한다.

-귀신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미혹해도 그 결과는 항상 악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한다.

다음으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셨다.

2. 왜 영들을 분별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가?

1) 거짓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숫자도 많다.)

-거짓선지자란, 자칭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무당이나 타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경건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신령한 자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미혹하는 말을 퍼뜨리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로 행동한다.

-적그리스도도 명시적으로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높여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다.

누가 사악한 영을 받았는가?

1. 예수님의 육체적 강림과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당시로서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무리들로 나타남.

2.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3. 전하는 말씀이 세상에 속한 말인지,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를 분별하라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찬양예배>

제목 :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 요한복음 8장 1-11절

Tag:용서,부끄러움,수치,회심,염치,정죄,신약성경,요한복음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8:1-11)

주보설명.

9.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군중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됨.

-군중들이 부끄러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글을 쓰심.

-군중들처럼 무분별하게 죄를 지적하면 죄인은 궁지에 몰리게 되어 염치가 없어짐.

11.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예수님 스스로가 대신 정죄하기 위해 오심.

-예수님이 대신 정죄 당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져가심.

-우리도 동일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함.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삶.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삶.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죽을정도의 수치임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해짐.